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 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따로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막 4:33-34).

비유란 ‘말하는 바 이상 혹은 다른 것을 뜻하고 각각의 사람에게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이야기’다. 그리고 그 뜻을 찾았을 때, 비유는 순수한 인식의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일체의 태도, 의지와 행동을 유발한다. 비유를 이해한다 함은 단지 깨달음을 말하기 보다는 보통은 변화를 뜻하거나 혹은 최소한 그런 변화에 도전 받음을 의미한다. R. T. France, *The Gospel of Mark* (NIGTC; Eerdmans, 2002), 183.

지금까지는 예수가 갈릴리를 중심으로 행한 가르침과 삶을 소개하였는데, 이에 대한 세상의 반응이 다양하다. 사람들은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는가 하면(1:27), 무시하거나(3:21-22),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3:6). 그 동안 예수의 가르침이 부분적으로 소개 되었다면(1:21-27; 2:13), 마가복음 4 장의 비유 이야기는 다소 긴 가르침을 모은 장(章)이다. 이런 식의 가르침이 예루살렘에서 행적을 마치면서 13 장에 한 번 더 나온다. 이를 통해 그간의 여정을 되돌아 보는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되는데 일종의 의식화, 신학화 작업이다. 하느님의 복음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면, 왜 이렇게 각각 다른 반응을 보이고 이해에 차이를 가져오나? 이것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답하고자 하는 점이다.

#### 네 종류 사람들

마가복음은 예수가 비유 외에는 말씀치 않았다고 하며(4:34; cf. 3:23; 7:17; 12:1), 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모든 비유의 기초를 이룬다고 말한다(4:13). 마가복음 입장에서 이 말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의 비유/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결론이다.

우리는 통상 “씨 뿌리는 자의 비유”(The Parable of the Sower)라고 말하지만, 실상 이 비유는 씨 뿌리는 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씨앗—더 정확히는 씨앗이 떨어진 땅—의 종류에 관한 이야기다. 그리고 이어지는 해석에서 씨는 말씀을 뜻한다(4:14). 그러나 비유의 초점은 씨앗도 말씀도 아니고, 이것이 떨어진 땅의 종류, 곧 말씀을 듣는 사람의 종류다.

길 가에 떨어진 씨는 곧 새의 먹이가 되는데, 새는 사탄을 빗댄 말이다(4:4, 15). 이것은 지배체제를 뜻하는 것으로, 사람이 지배이데올로기 혹은 지배신학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이 그 안에 뿌려져도 자리잡지 못함을 의미한다. 군중들은 예수의 병 고침을 구경 삼아 따라 나서지만 결국은 예수를 죽이는데 일조할 뿐이다(15:6-15).

돌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에 잠깐 관심을 보이다가, 환난과 핍박이 닥치면 곧 무너지는 사람을 가리킨다(5-6, 16-17). 뿌리가 없다는 말은 스스로 설 수 있는 자신의 신학/신앙이 없다는 말이며, 외부의 압력에 쉽게 흔들린다. 지배신학의 핍박을 이기지 못해 무너지게 되는 경우로 제자들이 이에 해당한다 (14:26-50, 66-72).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물질 만능주의(맘몬, Mammon)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다(4:7, 18-19). 그 나름대로 신학과 신앙은 가졌지만, 삶이 받쳐 주지 못하는 경우로, 영생을 묻는 부자의 경우와 같다(10:17-23). 자신의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예수를 따르는 말에 근심해 떠난다.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기타 욕심이 그를 가로막는다. 신학과 신앙, 혹은

믿음과 생활의 불일치를 지적한 것으로, 성서가 말하는 의심이다. 양 다리 걸치기, 두 개의 신학노선을 갖는다는 말이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들은 신학과 신앙 혹은 믿음과 생활의 일치, 일관성을 갖는 경우다(8, 20). 복수형으로 쓰인 씨들에서 독자는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결실 또한 많은 것을 암시 받는다. 한 사람의 삶의 변화가 이를 보는 이들로 하여금 이 말씀과 신학을 따르게 만든다. 예수와 복음을 위해 따라 나선 사람들이 후에 집, 형제, 자매, 모친, 자식, 전토를 백배나 약속 받은 경우다(10:28-30). 창조적이고 양생적(養生的)인 신앙으로 두 번의 떡 나눔 사건 역시 이런 틀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6:30-44; 8:1-10).

### “열 두 (제자)와 함께 그의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

비유의 뜻과 함께 우리의 관심을 끄는 점은 예수께 비유에 관해 물은 사람들이다(4:10). 이들이 누구일까? 열몇 생각하기엔 열 두 제자들로 보인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마가복음 공동체를 가리키고 있다.

- 개역: 함께한 사람들이 열 두 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를 묻자오니
- 표준새번역: 예수의 주위에 둘러 있는 사람들이, 열두 제자와 함께, 그 비유들이 무슨 뜻인지를 예수께 물었다
- 공동번역: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열 두 제자와 함께 와서 비유의 뜻을 물었다
- NIV: the Twelve and the others around him asked him about the parables
- NRSV: those who were around him along with the twelve asked him about the parables

열 두 제자와 사람들이 함께 물었을까?(NIV; 모든 한글 성경) 오히려 “열 두 (제자)와 함께 그의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οἱ περὶ αὐτὸν σὺν τοῖς δώδεκα) 따로 묻는 말이다(NRSV).

마가복음 4:11-12는 이사야 6:9-10 을 들어 깨닫지 못함과 비유의 목적을 설명한다. 비유의 목적은 외부인들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데 있다. 여기서 외부인이란 표면상으로는 예수를 감시하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일 것이다. 그럴 경우 비유를 씌으로써 예수의 공적인 담화에 꼬투리를 잡히지 않으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 그런데 후에 나오는 포도원 비유에서, 그들은 비유가 자신들을 가리켜 말한 것을 알아차리고 예수를 잡고자 한다(12:12).

문제는 열 두 제자인데 그들은 마음이 둔하여져 깨닫지 못했다고 여러 번 지적당한다(4:12; 6:52; 7:14; 8:17, 21). 마가복음의 제자들은 마태복음과는 달리 깨달음이 문제다(마 16:12; 17:13 비교). 베드로가 꾸중을 당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8:30). 이것이 초점이자 마가복음이 당면한 문제다. 그렇다면 과연 열 두 제자들이 예수에게 비유의 뜻을 물었을까?

우리는 마가복음을 읽을 때 예수의 시간대(역사적 배경—30년대)과 독자의 시간대(이야기 배경—70년대)를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다. 관심은 당시 (그리고 현재)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과 열 두 제자/사도와 차이점이다. 예루살렘 성전의 붕괴와 함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유대지도자들은 그 힘을 잃고 사라졌다. 그 와중에 예수 공동체가 살아남고 조직화되면서, 소위 열 두 제자/사도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초기 교회 공동체의 핵심멤버로 부상했다. 그러나 그들은 자리 다툼에 눈이 어둡고(9:33), 어린 아이들을 등한시 했으며(10:13), 깨닫지 못했다(6:52; 8:17). 반면 마가 공동체는 예수의 참 뜻을 알고 그 정신을 따른다. 이것이 마가복음이 담고 있는 정체성 선언이자, 신학적 메시지다.

마가복음에 인용된 이사야 본문이 다소 어려운데 마소라 사본(Masoretic Text)에 의하면 이사야가 받은 명령은 사람들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 고침 받지 못하게 함이다(사 6:9-10). 포도원 비유를 통해 유대와 이스라엘 통치자를 꾸짖은 후(사 5:1-7), 선지자 이사야는 당시 지배체제의 횡포를 고발하고 있다(사 5:8-23). 이렇게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 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찢저”(사 5:8)

주께서 이르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일러라. '듣기는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말아라. 보기는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말아라.'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를 어둡게 하며 눈을 뜨지 못하게 하여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 와서 성해지면 어찌 하겠느냐?" (사 6:9-10; 공동번역)

히브리성서에서는 하느님이 이사야를 보내 사람들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었지만, 이를 번역한 칠십인역(LXX)은 사람들의 마음이 둔하여 진 것에 대해 그들 자신의 탓으로 돌린다. 칠십인역을 번역한 한글 역본은 없지만, 칠십인역과 마태복음의 헬라어 본문이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에 공동번역을 통해 인용된 말을 역추적해 볼 수 있다.

이사야가 일찌기,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알아 듣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 보지 못하리라. 이 백성이 마음의 문을 닫고 귀를 막고 눈을 감은 탓이니, 그렇지만 았다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 서서 마침내 나한테 온전하게 고침을 받으리라’고 말하지 않았더냐?(마 13: 14-15; 공동번역)

마태복음은 칠십인역을 따르고(마 13: 14-15), 마가복음은 마소라 사본, 히브리성서의 이해를 따른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막 4:11-12).

칠십인역과 마태복음이 사람들의 도덕적 문제를 다룬다면, 깨닫지 못함 역시 그들의 문제고 징계의 대상이다. 그런데 히브리성서와 마가복음에서는 보다 심각한 구조악을 지적하고 지배체제에 대한 정치적/신학적 문제를 다룬다.

### 지배체제에 저항하는 사람들

또 다른 비유에서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것이 자라 큰 가지를 내고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이게 된다(4:32). 이것은 구약성서에서 보통 왕권과 국력의 확장을 의미했다(에스겔 17 장, 31 장; 다니엘 4 장). 한 가지 예로, 다니엘서 4 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는데, 그 꿈을 서술하는 표현이 낯설지 않다. 나무가 크게 자라 끝이 하늘에 닿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고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인다(단 4:11-12; 20-22). 에스겔의 백향목 비유에서 새들은 그 그늘 아래 깃든 “모든 큰 나라들”(겔 31:6)을 의미한다. 겨자씨 비유는 가장 볼품 없어 보이는 작은 씨앗이 자라서 크게 됨과 같이, 예수를 따르는 마가 공동체가 힘도 없고 수적으로 미약할지라도, 예수의 복음을 살아냄으로써 결국 하느님 나라가 세상의 지배체제를 대체할 것을 비유한 말로 보인다.

마가복음 4 장에 실린 비유에서 군중들은 밖에 있고 제자들은 집 안에 있는데, 아마도 마가 공동체의 가정교회(house church)를 연상할 수 있다. 소위 편집비평의 눈으로 살펴보면,

10 절부터 25 절의 말씀, 곧 청중이 "열 둘과 함께 예수 주위에 둘러 있는 사람들"로 제한된 말씀들은 이를 둘러싼 1-9 절, 26-32 절과 대조가 된다. 주목할 점은, 1-9 절과 26-32 절에서는 씨 뿌리기, 씨앗이 자라는 등 바깥 세상의 일들이 비유에 등장한다. 그리고 10-25 절에서는 집안의 용품들—등불, 침상, 등경—이 비유의 대상이다.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예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외부인이 아닌 ‘내부인’들로서 제도 (교회/기독교, 베드로) 안에 들어 온 사람들이라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예수의 신학을 살아내는 사람들(무명의 제자들)이고 이들이 아마도 마가복음을 남긴 사람들일 것이다. 이들에게 “하느님 나라의 비밀”(4:11)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안과 밖을 모두 볼 수 있는 청중은 독자 밖에는 없다. 결국 독자들의 결단을 촉구한다. “갈릴리로 가라”(16:7). 예수의 복음을 살아내라. 하느님 나라의 비밀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정해진 것—그런 의미에서 선택된 제자들—이 아니라 스스로 결단을 통해 하느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다. 마가복음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 생각해 보기

1. 네 가지 신앙인의 모습/형태 중, 나는 어디에 속할까? (길 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2. 참 신앙인으로 가는 길에 나를 막는 요인은? 이를 벗어나는 길은?
  - 한계(limit)를 정한다=> 권력, 지위, 재물... (최소한의 필요를 정한다.)
  - 네 가지 신앙(인)의 모습도 각각의 한계에 따른 행동.